

1/19/20

설교 제목: 천지창조에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 장 2-3 절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sup>2</sup> 운행하시니라 **절판주** 렘 4:23, 사 40:12

(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sup>2</sup>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sup>3</sup>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창세기는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진리를 선포한데 이어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와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라는 또 다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진리이기에 어떤 설명이나 논리 전개 또는 설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포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포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이 열려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과 복을 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에 이어 본문은 당시 지구의 상태와 성령 하나님인 하나님의 영과 성자 하나님인 말씀을 소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을 한 후 바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셨고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이 개념을 단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을 가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1/3씩으로 합해서 한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각 위 하나님은 각각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인격체로 그 본질에 있어 우열이 없으시며 각각 구별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게 권위가 있으시며 영광이 충만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구원 사역을 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천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고 완성시키십니다.

창세기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 복음과 골로새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의 현장에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을 보겠습니다.

-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요 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 (요 1: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 (요 1: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 (요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요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었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사역에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 1: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 오겠습니다.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 지구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습을 '혼돈' '공허' '흑암' 세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형태가 없이 텅 비어 있었고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깔려 있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 화성, 토성, 목성 등과 같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지구를 제외하고는 어떤 위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에서도 화성에서도 토성에서도 목성에서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깔려 있는 하나의 물질일 뿐입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 하셨습니다.

'깊음'은 원어로 '테흠' 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깊음' 곧 물 위 '수면'에 운행하신 것입니다.

'운행했다'는 것은 물체 위에 영향력이나 기운을 내리 쏟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물과 수증기만이 존재했던 지구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구를 감싸 운행하시며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수많은 위성들 가운데 지구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생명체를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자마다 생명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죽은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지구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생명력이 생기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생명이 태동되고 능력이 임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능력이 없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도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 붙잡히시자 무서워서 각기 흩어져 도망갔고 숨어 지냈습니다.

요한은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함께 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는 이유로 자신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잡혀 죽을까봐서입니다.

그들은 담대하지 못했으며 두려워했고 비겁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180도 변했습니다.

무서워 숨어지내던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이 생명을 받아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살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 3.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창지창조를 보면 성령이 운행하실 때 창조의 말씀이 있었고 그때 성령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있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즉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능력과 기적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없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과 상식으로 말씀에 접근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길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을 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창조사역에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에서 성령 하나님을,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천지 창조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위대함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 8: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 8: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 8: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진리는 인간의 지식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과 지식 이상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지구를 운행하실 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성령 안에서 능력이 된 것입니다.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진리를 믿고 성령 충만 받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